

Meritz 통신서비스 Weekly



통신/미디어
Analyst 정지수
02. 6454-4863
jisoo.jeong@meritz.co.kr

2021.5.17

1 주가 현황

	수익률(%)				PER(x)		PBR(x)		배당수익률(%)		국내 통신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1W	1M	3M	6M	2021E	2022E	2021E	2022E	2021E	2022E	
KOSPI	-1.4	-1.4	0.6	24.2	12.6	12.6	1.2	1.2	1.6	1.6	<p>SK텔레콤 (blue line), KT (light blue line), LG유플러스 (black line)</p> <p>SKT 44.6% (+0.3%p WoW, +6.0%p MoM) KT 44.0% (+0.5%p WoW, +1.0%p MoM) LGU+ 31.8% (+0.4%p WoW, +1.5%p MoM) 통신3사, 외국인 지분율 순매수 4주 연속 기록</p>
통신업종	2.8	6.7	21.8	34.3	10.4	10.4	0.8	0.8	3.6	3.6	
SK텔레콤	1.6	5.0	26.3	36.6	11.0	8.6	0.9	0.9	3.3	3.4	
KT	5.6	9.0	16.8	31.9	9.8	8.7	0.5	0.5	4.7	5.0	
LG유플러스	5.3	12.5	17.0	29.3	9.5	8.4	0.8	0.8	3.4	3.7	
AT&T	0.2	8.4	11.9	11.5	10.2	10.2	1.3	1.3	6.5	6.4	
Verizon	-0.1	1.7	8.3	-3.9	11.5	11.3	3.1	2.8	4.3	4.4	
T-Mobile	1.7	7.6	14.4	10.4	59.9	41.4	2.6	2.4	0.0	0.0	
NTT	2.1	1.4	0.4	17.0	11.7	9.7	1.3	1.3	3.6	3.8	
KDDI	4.5	2.6	3.9	12.1	12.4	12.2	1.7	1.6	3.4	3.6	
Softbank	-14.7	-15.4	-18.2	25.6	4.2	13.5	1.9	1.0	0.5	0.5	
China Mobile	-2.9	-5.2	1.5	0.8	7.4	7.1	0.7	0.7	7.2	7.3	
China Unicom	-2.0	-0.4	-1.8	-9.2	7.9	7.0	0.3	0.3	5.1	5.7	
China Telecom	-9.8	-3.0	15.7	7.9	7.8	7.4	0.5	0.4	5.3	5.5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2 업종 코멘트

전주 동향

5월 둘째주 통신업종 주가지수는 KOSPI 대비 +4.2%p 수익률 기록하며 Outperform
국내 통신3사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록하며 주가 상승
SK텔레콤, 8,075만주에서 7,206만주로 자사주 869만주 소각을 반영한 변경상장을 완료
국내 기관은 KT, LGU+ 순매수, SK텔레콤 순매도. 외국인인 KT, SK텔레콤, LGU+ 순매수

금주 전망

금주는 21일 KT CEO 간담회 예정
KT의 향후 Digico 전략, 배당 및 자회사 IPO 계획 등이 다뤄질 전망
경쟁사 대비 외국인 지분율 한도에 여유가 있는 LG유플러스에 대한 매수 추천 의견 유지
5G 통신장비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1Q21 실적 기록, 삼성전자 밸류체인 업체들은 2Q21부터 실적 개선

★ 통신업종 캘린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9	10	11 SK텔레콤 & KT 1Q21 실적발표	12 LG유플러스 1Q21 실적발표	13	14	15
16	17	18	19	20	21 KT CEO 간담회	22

3 주간 뉴스

▶ SKT, 자사주 869만주 소각 완료

(ZD Net Korea)

- SK텔레콤, 8,075만주에서 7,206만주로 자사주 869만주 소각을 반영한 변경상장을 완료
- 지난 4일 인적분할에 앞서 기업가치와 주주 가치 높이기 위해 기존 자사주를 사실상 전량 소각
- 소각 후 시가총액은 22.5조원 기록, 지난 3월25일 시가총액 약 20.5조원 대비 10% 가량 증가
- ⇒ 인적분할은 상반기 내 이사회 의결을 거쳐 10월 주주총회, 11월 재상장을 통해 완료할 계획
- ⇒ 기업 펀더멘털 변동 없이 주식 수만 줄어든 상황으로 자사주 소각 전보다 주가상승 여력 증가

▶ 'LG유플러스, 2G 서비스 6월 종료' 정부 최종결정 임박

(조선일보)

- 과기정통부, LG유플러스 2G 서비스에 대한 현장 실사를 완료하고 청문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
- 현장 실사 결과와 청문 의견을 토대로 2G 서비스 종료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한 절차에 돌입
-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 1월 2G 서비스 종료를 선언하고 과기정통부에 2G 서비스 종료 승인을 신청
- ⇒ 과기정통부 통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 2G 가입자는 2,278만개 회선으로, 전체 가입자의 1.5% 수준
- ⇒ 앞선 2G 종료 사례와 조건을 고려했을때 LG유플러스 2G 종료 승인이 어렵지 않게 완료될 전망

▶ 미·일 '6G 동맹', 5조원 투자... 중국 5G 패권에 반격 나섰다

(조선일보)

- 미국과 일본, 차세대 통신 규격 6G 연구·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45억달러(약 5조원) 투입 결정
- 5G 통신장비시장에서 중국, 유럽, 한국 업체를 대비 미국·일본 업체의 존재감이 미미한 상황
- 반면 6G 관련 특허는 일본 NTT도코모가 6%, 미국 퀄컴이 화웨이와 비슷한 10%를 보유 중
- ⇒ 이에 앞서 중국 정부도 지난 3월 인민대회에서 2025년까지의 5개년 계획에 6G 기술 개발을 포함
- ⇒ 6G 시장 선점을 놓고 시장경쟁 심화, 5G 통신장비 시장에서 중국에 완패한 미국의 선전 기대

▶ 중국, 에릭슨 보복하나... '화웨이 금지한 스웨덴에 마지막 기회'

(이데일리)

- 중국 4대 이동 통신사들이 5G 장비 테스트에 스웨덴 기업 에릭슨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초청
- 에릭슨의 중국 5G 시장 참여 여부는 화웨이에 대한 스웨덴 정부의 입장에 따라 결정될 전망
- 앞서 스웨덴 정부는 10월 자국 5G 네트워크에서 화웨이와 ZTE 등 중국 업체 장비 사용을 금지
- ⇒ 에릭슨은 현재 중국에서 외산 장비 중 최대 규모인 두 자릿수의 점유율로 5G 시장에 참여 중
- ⇒ 향후 스웨덴 정부의 공식 입장 변화 여부가 5G 통신장비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의 중요 변수

▶ 삼성전자, 갤럭시A52 5G 내달 국내 출시... 전파인증 획득

(조선일보)

- 삼성전자, 국립전파연구원 적합성평가 인증 획득으로 내달 갤럭시A52 5G 국내 첫 출시 예정
- 갤럭시A52 5G는 지난해 삼성전자 스마트폰 최다 판매량을 기록한 갤럭시A51 후속 모델
- 갤럭시A52 5G는 국내보다 앞서 판매를 시작한 유럽에서 높은 가성비로 인기가 높은 상황
- ⇒ 통신 3사의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와 함께 5G 단말 라인업 확대로 5G 가입자 증가 예상
- ⇒ 5G 가입자 증가로 인해 통신 3사 2021년 무선 ARPU 턴어라운드 추세가 지속될 전망

▶ SKT, 글로벌 최대 행사 'AWS 서밋'서 MEC 기술력 뽐낸다

(아이뉴스24)

- SK텔레콤, 'AWS 서밋'에서 모바일에지컴퓨팅(MEC)과 클라우드 사업 분야 전략과 비전 제시
- 5G 에지 클라우드 서비스인 'SKT 5GX 에지(Edge)'와 다양한 MEC 적용 사례들을 소개
- SK텔레콤은 12월 AWS와 협력, 국내 최초 5G 에지 클라우드 서비스인 'SKT 5GX 에지' 상용화
- ⇒ SK텔레콤은 현재 20여 곳의 업체와 협력해 모빌리티, 의료 등 다양한 분야 5G MEC 테스트 중
- ⇒ SK텔레콤은 지난달 'MEC 웨비나' 개최와 함께 향후 미래 사업으로 MEC 육성에 집중할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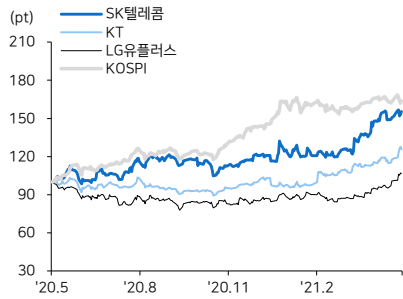
4 주요 지표

(십억달러)	종가 (통화)	시가 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EBITDA		EV/EBITDA (배)		ROE (%)		
			2021E	2022E	2021E	2022E	2021E	2022E	2021E	2022E	2021E	2022E	2021E	2022E	
한국	SK텔레콤	317,000	20.3	17.3	18.0	1.4	1.5	2.0	2.4	5.1	5.2	5.7	5.6	8.9	10.4
	KT	31,000	7.2	21.8	22.4	1.2	1.3	0.7	0.8	4.4	4.6	2.8	2.8	5.8	6.3
	LG유플러스	14,800	5.7	12.4	12.9	0.9	1.0	0.6	0.7	3.1	3.2	3.7	3.6	8.9	9.5
미국	AT&T	32.2	230.2	173.2	167.2	33.4	33.7	22.9	22.8	53.5	53.1	7.8	7.8	12.7	11.7
	Verizon	58.7	243.0	133.7	136.4	31.7	32.8	20.9	21.4	48.6	50.0	8.1	7.8	28.1	25.3
	T-Mobile	141.5	176.5	79.5	81.6	7.1	9.5	3.1	4.4	27.1	28.1	9.2	8.9	4.9	6.0
일본	NTT	2,905	103.6	108.2	108.4	15.1	15.3	8.4	9.7	29.0	29.2	6.1	6.1	10.8	13.2
	KDDI	3,532	74.4	48.5	48.9	9.6	9.6	6.0	6.0	16.3	16.2	5.2	5.2	14.5	13.6
	Softbank	8,528	136.3	50.8	53.4	49.7	10.7	31.9	8.3	49.9	32.5	5.5	8.4	39.3	10.3
중국	China Mobile	48.6	128.0	124.2	129.2	18.6	19.3	17.3	18.0	45.9	47.4	1.5	1.5	9.5	9.5
	China Unicom	4.4	17.5	49.3	51.9	2.1	2.4	2.2	2.5	15.1	15.8	1.0	0.9	4.3	4.8
	China Telecom	2.6	26.9	64.2	66.9	4.9	5.1	3.5	3.8	19.3	19.9	1.9	1.8	6.1	6.3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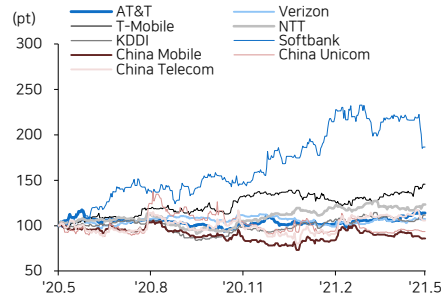
5 주요 차트

최근 1년 국내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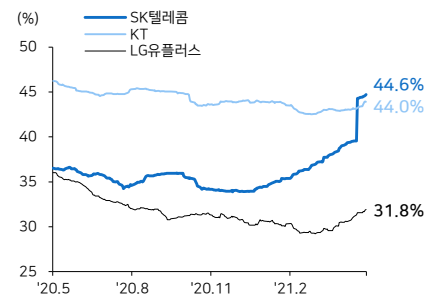
자료: WiseFn

최근 1년 해외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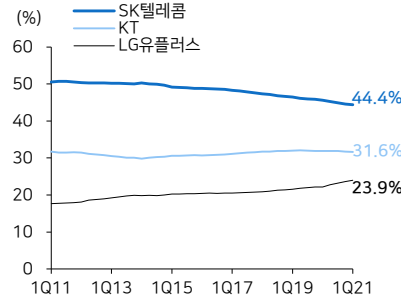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통신 3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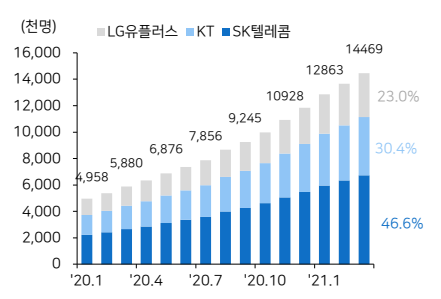
자료: WiseFn

통신 3사 이동전화 점유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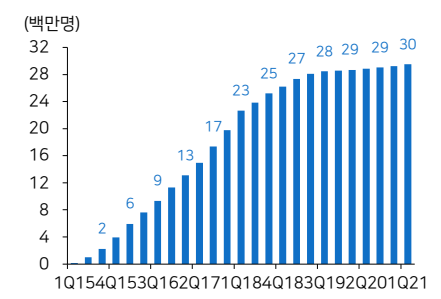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3사 5G 가입자 및 점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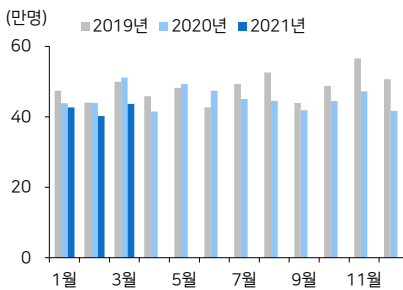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택약정할인 가입자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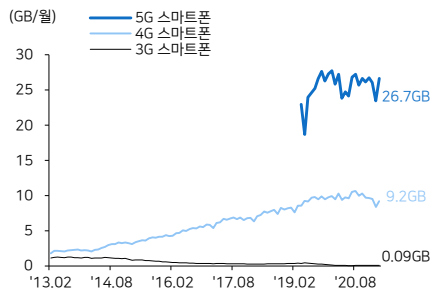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번호이동시장(MNP)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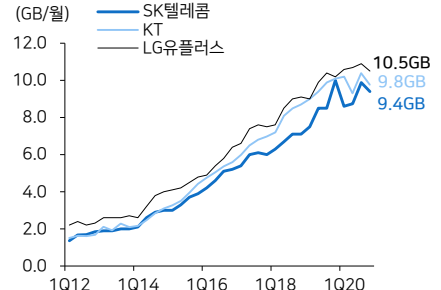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전화 단말기별 트래픽 현황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 3사 LTE 가입자 데이터 사용량



자료: 각 사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